

광주은행, 지역 금융권 최초 '외국인금융센터' 개점

광산구 흑석동 외국인주민센터 1층 38개국 실시간 통번역서비스 시스템 베트남 등 4개국 창구직원 채용·배치 고병일 "지역사회 다양성·포용성 고려"

광주 광산구에 광주·전남지역 금융권 최초로 외국인만 이용 가능한 '외국인 주민 전용 은행'이 문을 열었다.

광주은행은 24일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 김명수 광산구의회 의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김명군 몽골 명예영사, 윤옥균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본부장, 지역 외국인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광산구 흑석동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1층에서 '외국인금융센터' 개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외국인금융센터는 매년 증가하는 광주·전남 외국인 근로자와 이주민들의 금융 니즈(Needs)를 충족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한 광주·전남 금융권 최초의 외국인 전용 영업점이다.



광주은행은 24일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 김명수 광산구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외국인금융센터'를 개점했다.

단순 환전 및 송금은 물론이고, 수신업무, 대출업무 등 외국인 고객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외국인금융센터는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문을 연

다. 광주은행은 단순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공에 그치지 않고, 외국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개점한 점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동일 건물에 위치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광산구 흑석동에 자리잡고

있어 많은 외국인 금융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언어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38개국 언어를 지원하는 실시간 통번역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4개국(베트남, 인도네시아, 네팔, 몽골) 외국인 직원을 창구에 배치해 공감대 형성을 통한 맞춤형 금융서비스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

다. 이번 외국인금융센터 개점에 앞서 광주은행은 외국인 전용 통장, 카드, 대출 상품을 출시해 외국인 고객들이 금융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외국인 고객들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지역 사회의 핵심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외국어 금융서비스가 가능한 외국인주민 전용 은행이 문을 열게 돼 뜻깊다"며 "광주는 포용도시로 한발짝 더 다가섰다. 외국인주민들의 편의를 세심히 살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번 외국인금융센터 개점으로 광주·전남 지역 외국인들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고려한 금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금호타이어, 봄맞이 구매고객 '사은 이벤트'

내달 22일까지 사은품 제공

금호타이어가 24일부터 프리미엄 타이어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봄맞이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금호타이어의 승용 및 SUV 차량용 타이어 4개를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 증정 혜택을 제공하며, 타이어프롬 등 전국 금호타이어 대리점(일부매장 제외)에서 참여 가능하다.

대상 제품은 금호타이어의 전기차 전용 타이어 이노브 프리미엄(EnnoV Premium)과 마제스티X(Majesty X) 솔루션, 크루젠(CRUGEN) HP71, 크루젠 HP51 등이며 오는 3월22일까지 GS칼텍스X이마트 결합 모바일 상품권 증정과 함께 현장에서 QR 인증 후 구매 시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호타이어 공식 홈페이지(www.kumhotire.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노브 프리미엄은 세계 최초로 단일 제품에 HLC 기술을 전 규격에 적용한 차

세대 금호타이어 전기차 전용 타이어로 전기차와 같은 고하중 차량에서도 최적의 성능을 구현하도록 설계했다. 해당 제품은 K-사일런트(Silent) 기술인 폼 부착으로 공명음을 최소화 시켰으며, 패턴 설계 해석 시스템을 활용해 주행 및 내마모 성능을 향상시켰다.

마제스티X 솔루션은 금호타이어의 프리미엄 타이어인 '마제스티 솔루션(Majesty SOLUS)'의 명맥을 잇는 최상위 럭셔리 제품이다. 고분산 정밀 실리카가 적용된 컴파운드 및 패턴소음 저감기술을 적용해 승차감 및 제동성능을 극대화하고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하고 있다.

크루젠 라인업의 대표 모델인 크루젠 HP71은 도심에서 안정적인 주행을 원하는 SUV 운전자들을 위해 부드러운 주행 성능과 정숙성을 강화시킨 고성능 프리미엄 컴포트 SUV용 타이어다. 또 크루젠 HP51은 자체 기존 제품 대비 구름저항과 빗길 제동력 등을 대폭 개선해 주행안정성이 뛰어난 제품이다. 박소영 기자

AI사업단, 기업에 고성능 AI 인프라 제공

최신 AI가속기 'H100'·HPC 서비스 AI 연구·개발 최적화 생태계 확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초거대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초고성능 컴퓨팅(HPC) 서비스와 최신 AI 가속기 'H100' 등을 160여 개 AI 기업·기관에 제공한다.

24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AI 산업 생태계 확대를 위해 '2025년 AI데이터센터 서비스' 이용자를 오는 3월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국내 중소·벤처기업,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협·단체 등이며, 개인 및 대기업은 제외된다. 단, 사업단이 지원하는 R&D 사업 수행 기업(관)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HPC는 4월부터 6월까지) 최대 9개월이며, 이용 종료 15일 전까지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기관은 AI 개발에 필수적인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지원 자원은 △최신 AI 연산 장비(H100, A100, T4, BOW 등) △기본 50TB의 스토리지 △AI 서비스 및 솔루션 기반 개발환경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및 보안 서비스 등이며, 추가 스토리지 신청도 가능하다.

이번 모집을 통해 약 160개 기관이 선정될 예정이며, AI 기반 학습, 추론, 분석 분야에서 모델 및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기업과 기관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I데이터센터 서비스는 초거대 AI를 위한 HPC(초고성능 컴퓨팅) 서비스뿐만 아니라, 고성능 AI 가속기 서비스를 제공해 AI 제품 개발부터 상용 서비스 검증까지 폭넓은 지원을 제공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11일 오후 2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홈페이지(www.aica-gj.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해 이메일(aica_dc@aicluster.or.kr)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사업 설명회는 25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28일 오후 2시에는 광주 동구 AI창업캠프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진행될 예정이다. 노병하 기자

광주신세계 "키링·지비츠로 개성 표현"



광주신세계가 '아보하(아주 보통의 하루)' 트렌드에 발맞춰 일상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키링·지비츠 등 작은 소품들을 선보인다. 광주신세계 제공

일상의 즐거움 '아보하' 트렌드 키링·크룩스 등 브랜드 선보

트렌드 코리아 2025가 예측한 올해 주요 트렌드 중에는 '아보하'가 있다. '아주 보통의 하루'를 뜻하는 말로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무난하고 무탈한 삶을 가지 있게 여기는 태도를 가리킨다. 커다란 행복 대신 평범한 일상에 주목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키링 등 작은 소품에서 즐거움을 찾는 고객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광주신세계는 '아보하' 트렌드에 발맞춰 일상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키링·지비츠 등 작은 소품들을 선보인다.

먼저 광주신세계 플레이 스팟(구 신관)에서 만날 수 있는 '키링'은 가방 구매 고객 중 30~40%가 키링을 추가 구매할 정도로 수요가 많다. 키링은 지난 1987년 벨기에에서 설립된 잡화 브랜드

로 가볍고 수납력이 좋은 가방을 만들며 전세계 소비자들로부터 사랑 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 가방에 키링을 붙이는 트렌드가 유행하면서 키링에서 출시한 제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개봉했던 영화 '위키드'의 캐릭터를 소재로 만든 키링은 6만8000원이라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구매하는 고객들이 꾸준히 이어지는 중이다. 키링에서 고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키링은 고릴라 모양의 키링으로 기본 사이즈와 작은 사이즈가 각각 2만원, 1만5000원에 판매 중이다.

플레이 스팟에서 만날 수 있는 '커버넌'에서도 다양한 키링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얻고 있다. 키링을 선호하는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광주신세계 마하그리드에 판매중인 백팩 6종 모두에는 백팩 모양의 기본 키링이 부착돼 있다. 10~20대 소비자들은 키링을 통해 개성을 표현하

는 동시에 무선 이어폰 수납을 위해 키링을 많이 찾고 있다. 커버넌에서 별도로 판매하는 키링은 2만9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크룩스'의 지비츠도 아보하 시대 고객들이 주목하는 아이템이다. 광주신세계 플레이 스팟의 크룩스에서는 신발 구멍에 끼워서 사용하는 액세서리인 지비츠 수백종을 판매한다. 지비츠는 개당 가격이 3400원에서 9000원에 불과해 저렴한 가격으로 차별화된 개성을 드러내려는 젊은 여성 고객들이 많이 찾는다. 실제 광주신세계 크룩스매장에서는 신발 구매고객들이 1인당 평균 4~5만원의 지비츠를 구입할 정도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크룩스는 지비츠할인을 진행 중이다. 6개 이상 구매 시 20%, 12개 이상 구매 시 30%, 24개 이상 구매 시 40%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나다운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20년 연속 선정

인터넷 전남일보
www.jnilbo.com

모바일 전남일보
m.jnilbo.com